

북 “올림픽 참가 용의”...평창 평화올림픽 급물살

김정은 신년사 통해 밝혀...향후 절차는?

대표단 파견·남북 당국회담 등 언급
IOC·각 종목 국제단체 협의 거쳐야
“안보불안 제거...최대 겨울축제 호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3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인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올림픽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겨울 지구촌 대축제를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개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준비된 도시’ 평창을 앞세워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구축했고,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일찌감치 ‘봄입’ 조성에 나섰다.

올림픽의 가장 소중한 정신 중 하나인 ‘평화’는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크게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공공연히 표현해왔다. 북한의 술한 대남 도발과 묵묵부답 태도 속에서도 ‘평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단 한순간도 쉬 없이 진행돼 왔다.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계속될 줄 알았던 우리 정부의 메시지는 무술년 첫 아침에 처음으로 답장을 받았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전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는 “남

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번 신년사로 인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당장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대회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국제단체, 더 나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선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은 1일 “대표단 파견 등에 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정부 및 IOC와 협의해 민간의 대책을 갖추겠다”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서 이제 역대 최고, 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은 이제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으면서 ‘평화올림픽’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왔다. 금지약물 스캔들로 인한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 안보 불안을 이유로 출전 불가를 언급했던 프랑스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도 슬기로운 대처를 보이며 대축제 준비를 큰 차질없이 수행 해왔다. 이제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했다. 평화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퍼즐조각’은 과연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까.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북한은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4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 나서게 된다. 2006토리노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하고 있는 남북선수단. 스포츠동아DB

그렇더라도 북한 자력참가 종목은 제로

유일 자격 피겨스케이팅 출전권 이미 넘어가
쇼트트랙도 월드컵 참가 안해 힘들 듯
IOC 와일드카드도 일부 출전권 줄수도



피겨스케이팅 페어 럼대옥(왼쪽)-김주식 조

북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은 그동안 겨울 올림픽에서 어떤 성적을 올렸을까.

북한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총 2개의 메달을 땀다. 하계올림픽에서 역대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겨울올림픽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오스트리아) 대회를 통해 동계올림픽에 데뷔했다. 첫 참가 대회에서 한필화가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북한 최초의 겨울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두 번째이자 현재까지 마지막 메달은 1992년 알베르빌(프랑스)대회 때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 황옥실이 획득한 동메달이었다.

동계올림픽 참가도 들쭉날쭉했다. 1964인스브루크를 포함해 2014소치(러시아)까지 13번 열린 동계올림픽 중 8차례만 참가했다. 마지막 동계올림픽은 2010밴쿠버(캐나다)대회였다. 쇼지 올림픽은 출전권 확보에 실패해 참가하지 못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자력 참가는 어렵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럼대옥-김주식 조가 지난해 9월 2017국제빙상경기연맹(ISU)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6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최종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순위 조에 출전권이 넘어간 상태다. 쇼트트랙도 월

드컵 1~2차 대회는 참가했지만 3차 대회부터 불참해 올림픽 출전권과 멀어졌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면 와일드카드를 통해 일부 종목에 출전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IOC는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했다. 출전권 확보를 돕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 세 차례 선수단을 파견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이 첫 번째로 18개 종목에 선수 184명, 임원 132명을 파견했다. 특히 280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화제가 됐다. 부산아시안 게임에선 한국 남자핸드볼 황보성일과 북한 여자축구 리정희가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도 했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22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2014년 천아시안게임 때는 14개 종목 273명의 선수단이 함께했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평창올림픽 기간 환승전용 내항기 운항

2월 1~27일, 인천-양양 하루 4~5회

대한항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동계올림픽의 관문 공항인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를 임시운항한다. 환승전용 내항기는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들을 위한 국내선 연결 항공편이다.

인천-양양 환승전용 내항기는 동계올림픽 개막 8일 전인 2월1일부터 27일까지 운항한다. 2월1일부터 개막일인 9일까지는 하루 3회 운항하고 10일부터 폐막일인 25일까지는 하루 2회 운항한다. 폐막 이후에도 이를 동안 하루 4~5회 운항하는 등 대회 일정에 따라 다양한 스케줄로 내항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양양행 환승전용 내항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 후 곧바로 환승전용 내항기에 탑승해 양양공항에서 입국심사와 검역, 세관검사를 거쳐 출국할 때도 양양공항에서 모든 국제선 탑승수속을 다 마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국내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공식 파트너(Tier1)로서 테스트 이벤트 필수장비인 스노우 트랙을 무상수송하고, 임직원 응원 메시지 릴레이 이벤트 등 올림픽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에도 LSpartnership은
미래로! 세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목표,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
2018년에도 LS는 진정한 파트너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함께하여 더 큰 가치!